

국립국어원 소식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1.1. ‘드론’ 대신 ‘무인기’

- 드론(drone)의 다듬은 말: 무인기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의 다듬은 말: 즉시 퇴출

‘드론’은 ‘무인기’라는 뜻으로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로 유도해 비행 및 조정할 수 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항공기’를 이르는 말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날 때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 또는 기업, 영업소 등의 특정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는 제도’를 뜻하는 말로, ‘즉시 퇴출’로 다듬었다.

1.2. ‘인포그래픽’ 대신 ‘정보 그림’

- 인포그래픽(Infographics)의 다듬은 말: 정보 그림
- 스핀 오프(spin off)의 다듬은 말: 파생작
-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의 다듬은 말: 정보 가림 평가
- 큐레이션 서비스(curation service)의 다듬은 말: (정보) 추천 서비스
- 시그니처 아이템(signature item)의 다듬은 말: 대표 상품

‘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 그래픽(Information graphics) 또는 뉴스 그래픽(News graphics)’이라고도 하며 정보, 자료 또는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보 그림’이라고 다듬었다. ‘스핀 오프’는 ‘주

로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만화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기존의 작품(본편 또는 원작)에서 파생된 작품을 이르는 말이므로 ‘파생작’이라고 다듬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실험에 참가하게 한 다음, 반응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실험 방법’을 뜻하며, ‘정보 가림 평가’라고 다듬었다. 이때 ‘평가’는 문맥에 따라 ‘실험’, ‘시험’, ‘검사’ 등으로 대체하여 쓸 수 있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보)추천 서비스’로 다듬었는데,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 적절한 꾸림 정보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이르는 말이다. 다듬은 말 ‘(정보) 추천 서비스’는 ‘정보’ 외에 ‘뉴스’나 ‘도서’ 등 추천하는 대상을 넣어 ‘뉴스 추천 서비스’, ‘도서 추천 서비스’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아이템’은 ‘대표 상품’으로 다듬었다. ‘각 회사’의 상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품이나 제품을 뜻한다.

1.3. 누리집에서 다듬은 말 공모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는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말터 누리집에서 다듬은 말을 공모하고 있다. 다듬은 말로 선정된 말을 제안한 사람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다듬은 말들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이나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인 ‘말터’ (<http://malteo.korean.go.kr>)의 ‘이렇게 바꿨어요!’ 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국립국어원 원내 토론회

2.1. 2015년 제2회 원내 토론회

- 주제: 중국의 어문 정책과 한국 고전의 오역 문제
- 발표자: 정인갑(전 북경청화대 교수)
- 일시: 2015년 3월 16일(월) 16:00~18:0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 북경청화대 중문학과 정인갑 교수가 ‘중국의 어문 정책과 한국 고전의 오역 문제’라는 주제로, 중국 어문 정책의 제정·집행 구조 및 언어 정책의 역사와 방향성, 한어(漢語)를 바탕으로 본 한국 고전의 오역 문제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중국은 1954년 12월에 중국 최초의 어문 정책 등을 제정 및 집행하는 기관인 ‘중국문자개혁위원회(中國文字改革委員會)’를 설립하였다. 그에 소속된 ‘문자개혁(文字改革)출판사’는 중국문자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어문 정책 등을 반영하여 출판물을 간행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의 언어 문자를 연구하는 ‘어언학(語言學)연구소’가 있으며, ‘고대한어연구실’, ‘현대한어연구실’, ‘방언연구실’, ‘《중국어문(中國語文)》잡지실’ 등이 있다.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출판사’에 ‘공구서(工具書)편집실’이 있으며, 주로 현대 한어(現代漢語)에 관계되는 업무를 실행한다. ‘중화서국(中華書局)출판사’에 ‘어언 문자편집실(語言文字編輯室)’이 있으며 주로 고대 한어(古代漢語)와 관계되는 업무를 실행한다. 위의 1기관, 1연구소, 3출판사가 중국 언어 문자의 정책 및 사업 전반을 이끈다.

‘중국문자개혁위원회’는 한자의 정리와 간체화, 한자 독음의 규범화,

한어 병음 자모의 제정, 표준어 보급 등을 통해 중국 어문 정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50~1965년에는 ‘한자 자형(字形)의 규범’, ‘간체자의 제정’, ‘한자 음독의 규범’, ‘병음 자모의 사용’, ‘표준어 보급’ 등의 과업을 완수하였다. 1979년 개혁개방 이후로 홍콩, 대만과 세계 각국 화교의 언어가 밀물처럼 들어오고 영어 등 외래어가 범람하기 시작하면서 ‘중국문자개혁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의 변혁이 불가피하였다. 1985년 12월에 ‘중국문자개혁위원회’를 ‘국가어언문자공작위원회(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이하 ‘국가어위’)’로, ‘문자개혁출판사’를 ‘어문출판사’로 개명하였다. 1998년 2월 ‘국가어위’를 중국 교육부 산하로 귀속시키고, 부부급(副部級) 단위(차관급)로 조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어위’의 역할을 “국가 언어 문자 사업의 방침, 정책 및 법령을 관철·집행하고, 언어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를 촉진하며, 문자 개혁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90년대부터 ‘국가어위’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어의 순결성과 규범성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어서 한국 고전의 오역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동안 이룩한 성과는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래에 제시하는 기준에서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고 하였다.

첫째, 번역상의 오류가 있다.

古郡主獻青牛。

- 《역주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제1권 24쪽.

번역: 고타군주가 푸른 소를 바쳤다.

정정: 고타군주가 검은 소를 바쳤다.

※青牛: 털이 검은 소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 靑牛: 黑毛的牛。

고대 중국어에서 ‘靑’을 ‘검다’는 뜻으로도 썼다.

둘째, 쉽게 피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

汝今忍害老兄乎?

- 《역주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제1권 169쪽.

번역: 네가 지금 늙은 형을 차마 해칠 수 있느냐?

정정: 네가 지금 차마 형님을 해치겠느냐?

※老: 여기에서 ‘老’는 ‘늙었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칭하는 접두사이다. 한국어 ‘-님’의 용법과 비슷한 현대 중국어의 용법이다.

셋째, 현대 중국어 단어를 틀리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嘗入朝尙早, 立紫宸殿門。

- 《역주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제1권 330쪽.

번역: 일찍이 조정에 알현하러 들어가다가 아직 일러서 자신전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정정: 조회하러 간 것이 아직 일러 자신전 문에서 기다린 적이 있는데……

한국 고전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한문과 현대 중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현 고전 번역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한문으로 사고하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인갑 교수의 발표에 이어 중국의 간체자, 번체자 사용 정책, 향후 중국의 외래어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어문 정책 교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2.2. 2015년 제3회 원내 토론회

- 주제: 성경 번역과 한국어 문법 및 문체
- 발표자: 전무용(대한성서공회 번역실 국장)
- 일시: 2015년 4월 6일(월) 16:00~18:0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전무용 국장이 ‘성경 번역과 한국어 문법 및 문체’라는 주제로, 성서 번역의 특징과 성서 번역자들이 고민하는 한국어 표현들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성경의 문체는 옛 시대의 것으로 그것이 번역되던 시대의 일상적인 문체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의 독자를 대상으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현대 한국어의 문법과 문체를 고려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언중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질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번역어를 선택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하니라/-하였다’와 ‘-이니라/이다’ 중에서 어떤 종결형 어미를 사용할 것인지, 또 ‘약대’와 ‘낙타’ 중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토박이말인 ‘약대’와 한자어인 ‘낙타’를 두고 《개역한글판 성경》에서도 ‘약대’를 쓰고 있으니 《성경전서 새번역》에서도 ‘약대’를 쓰자는 의견과 ‘낙타’가 훨씬 더 익숙하니 ‘낙타’를 쓰자는 의견이 있었다. 번역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서 ‘낙타’로 쓰기로 결정하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도 이 말은 모두 ‘낙타’로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개역한글판 성경》에서 총 2회 사용된 중세 국어의 ‘괴다’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모두 ‘사랑’으로 바꾸었다.

- ‘개역 에스더기’ 2:15 에스더가 …… 모든 보는 자에게 꿈을 언더라
→ ‘개정 에스더기’ 2:15 에스더가 ……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 ‘개역 에스더기’ 10:3 유대인 모르드개가 …… 그 허다한 형제에게 꿈을 받고
→ ‘개정 에스더기’ 10:3 유대인 모르드개가 ……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또 《개역개정판 성경》 개정 작업을 할 때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계집’을 ‘여인’ 또는 ‘여자’로 고치기도 하였다. 원래 중세 국어에서 ‘계집’은 비속어가 아니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계집’이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 되었다. 성경에서 ‘계집’을 ‘여인’으로 개정한 것 역시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라고 하겠다.

한국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낱말에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말, 성경을 번역하면서 새롭게 만든 말, 그리고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빌려 쓴 말 등이 있다. 특히 ‘구원, 십자가, 성령, 선지자, 제사장, 성전, 세례, 구속(救贖)’ 등 많은 낱말들을 중국어 성경에서 차용하였다.

한국 교회에서 사용해 온 중요한 용어는 가능한 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시대에 맞는 용어나 개념으로 새롭게 번역할 필요도 있다.

- ‘개정 민수기’ 28:10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 나라.
→ ‘새번역 민수기’ 28:10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 ‘개정 창세기’ 21:22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 ‘새번역 창세기’ 21:22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한편 문화 차이 때문에 그대로 번역할 수 없는 사물들이 많다. 성경 원문에서는 ‘뽕’이지만 ‘떡’으로 번역한 경우가 그러하다. 한국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온 사람에게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뽕을 떼며’ 성찬식을 하는 것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여러분/여러분들’처럼 한국어 복수접미사 ‘-들’을 사용하지, ‘고마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처럼 형용사의 높임을 인정하지, 또 ‘빛이 있어라’ 등의 명령형을 사용할지에 대한 번역자들의 고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전무용 국장의 발표 후 종교 경전의 번역 문체가 국어에 미친 영향, 선교사들의 사전 편찬과 보급 활동 내용, 성경 번역의 외래어 표기법, 차용어 사용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성경 번역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문법과 문체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감하며 원내 토론회를 마쳤다.

3.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위치: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자료 찾기’→‘연구 결과’→‘기타 자료’→검색: 검색어 ‘실무소위’
-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1차 심의 확정안(2015. 2. 16.)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2차 심의 확정안(2015. 3. 2.)
 - 제119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2015. 3. 4.)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3차 심의 확정안(2015. 3. 13.)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4차 심의 확정안(2015. 3. 20.)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5차 심의 확정안(2015. 3. 27.)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6차 심의 확정안(2015. 4. 3.)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7차 심의 확정안(2015. 4. 10.)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8차 심의 확정안(2015. 4. 17.)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9차 심의 확정안(2015. 4. 24.)
- 제120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2015. 4. 29.)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10차 심의 확정안(2015. 5. 15.)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11차 심의 확정안(2015. 5. 22.)

4. 제10대 국립국어원장에 송철의 서울대 교수 취임

2015년 5월 26일 자로 송철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제10대 국립국어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8년 5월 25일까지 3년이다.

송철의 신임 원장은 국어학, 한국어 교육학, 국어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주시경의 언어 이론과 표기법” 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신임 원장은 온화하고 포용력 있는 성품으로 국어학, 국어 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국어학계의 신망을 두루 받고 있으며, 행정 능력을 겸비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년간 국어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국외 한국어 교육, 남북한 어문 규범 단일화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어 한국어 세계화, 남북한 언어 통합, 공공 언어 개선, 국어 정보화, 언어 복지 증진 등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5. 국립국어원, 2014년 신어 조사 결과 발표

국립국어원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일간지 등 온·오프라인 대중 매체 139개에 등장한 새 낱말(신어) 334개를 조사하여 2014년 신어를 발표했다.

우리말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신어 조사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은 이번 2014년 신어 자료집에 ‘눔프족’(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복지 비용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는 사람), ‘일자리 절벽’(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뇌섹남’(‘뇌가 섹시한 남자’를 줄여 이르는 말.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유머가 있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남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는 신어들을 수록하였다.

5.1. 사람을 가리키는 어휘

이번 신어에는 특정 행동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어휘가 27%(92개)나 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모루밍족**: 실속 있는 소비 경향과 관련된 말로,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뒤 모바일 쇼핑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 **출퇴근 쇼핑족**: 숨 가쁜 일상을 반영한 말. 출퇴근을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따위로 쇼핑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오포 세대**: 생활고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구입을 포기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사회 경제적 문제를 반영했다.
- **앵그리맘**: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사회 문제에 분노하여 적극적으로 그 해결에 참여하는 여성을 뜻한다.

그리고 ‘금사빠녀’(‘금방 사랑에 빠지는 여자’를 줄여 이르는 말), ‘꼬돌남’(‘꼬시고 싶은 돌아온 독신 남자’를 줄여 이르는 말)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남녀의 특징을 반영한 어휘도 등장했다. 이렇게 특정 부류를 가리키는 접사로는 ‘-족(族)’, ‘-남(男)’, ‘-녀(女)’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앵그리맘’과 같은 외래어를 기반으로 만든 신어의 비율도 64%로 높게 나타났다.

5.2. 주제별로는 사회·경제, 통신 순

주제별로는 사회·경제(24%, 80개), 통신(14%, 47개) 어휘가 많이 나타났다.

사회·경제와 관련된 신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임금 절벽**: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말이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 반하여 임금은 오르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 **주거 절벽**: 급격하게 오른 주거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디 공포**: 통화량의 축소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에 대하여 느끼는 공포를 가리킨다.

특히, 우리 사회를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창업 절벽’ 등으로 설명한 <<절벽사회>>(고재학 씀)에서 유래한 ‘절벽’계 어휘들이 다수 등장했다.

다음으로는 통신 관련 어휘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과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의 사용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먹스타그램**: 자신이 먹은 음식 사진을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 올리는 일.
- **인생짤**: 그 사람의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잘 나온 사진을 말함.
- **광삭**: 빛의 속도와 같이 매우 빠르게 삭제함.

이 밖에도 ‘맛저’(‘맛있는 저녁’을 줄여 이르는 말), ‘부먹파’(탕수육을 먹을 때에 튀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는 것에 반하여, 튀긴 고기 위에 소스를 부어 먹는 사람의 무리) 등 음식 관련 어휘, ‘돼지맘’(은어로, 교육열이 매우 높고 사교육에 대한 정보에 정통하여 다른 어머니들을 이끄는 어머니를 이르는 말), ‘자동봉진’(‘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을 줄여 이르는 말) 등 교육 관련 어휘들도 여럿 나타났다.

5.3. 감정을 표현하는 신어

감정을 표현하는 신어도 10개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고급지다’(고급스러운 멋이 있다), ‘심멋’(심장이 멋을 만큼 멋지거나 아름답다는 말), ‘핵꿀잼’(매우 많이 재미있음) 등의 긍정적 어휘가 8개인 반면에 ‘노관심’(관심이 없음), ‘극혐오하다’(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다)와 같은 부정적 어휘는 2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최근 불경기와 취업난에 비추어 보면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매해 조사 전 12개월에 걸쳐 발간된 대중 매체의 언어를 대상으로 자동 신어 조사기를 활용하여 신어 후보 항목을 추출하고, 비속어 제외 등의 신어 선정 기준에 따라 그해 신어를 최종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신어는 이후 지속적인 사용 양상을 관찰하여 사전의 등

재 여부 및 표준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4년 신어 자료집은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4년부터 구축한 신어를 국민 참여형 웹사이트로 개발 중인 ‘우리말샘’(2016년 개통 예정)에 포함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6. 국립국어원, ‘재난 보도 언어 사용 지침’ 마련

국립국어원은 재난 보도의 정확성과 소통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준을 담은 ‘재난 보도 언어 사용 지침’(8쪽 분량)을 마련하여 전국의 신문·방송사에 배포했다.

6.1. 세월호 사고 방송 보도 내용 분석, 유형별 기준 제시

작년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이후 9월 16일에 10개 언론 단체가 공동으로 ‘재난 보도 준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재난 보도 준칙’은 신속·정확성,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의 원칙을 중심으로 재난 발생에 따른 보도 계획을 규정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언어, 영상, 자막, 그래픽 등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보도 준칙이 있어 기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재난 보도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지침을 제시하고자 2014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도한 지상파 방송사 세 곳과 종합 편성 채널 네 곳의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재난 보도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보도들을 분석한 결과, 소통성이 떨어지

는 보도 33.1%(구체적이지 않은 표현 19.3%,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13.8%),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26.4%(자극적 표현 10.7%, 편파적 표현 9.4%, 과장된 표현 6.3%), 부정확한 보도 21.1%(추측에 근거한 표현 12.9%,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8.2%) 등의 순서로 유형별 빈도를 보였다.

6.2. 여덟 가지로 재난 보도 언어 사용 기준 제시

‘재난 보도 언어 사용 지침’은 재난 보도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 표현을 유형화하여 아래와 같이 여덟 가지로 언어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풀이와 오류 용례를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1. 근거나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
2. 추측 표현을 피한다.
3.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구조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5. 재난 상황을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6. 뉴스 전달자의 개인적 감정 표현을 자제한다.
7.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8.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국립국어원은 ‘재난 보도 언어 사용 지침’ 총 2,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의 신문사와 방송사 등에 배포하고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 ‘자료 찾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7.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지도 자료' 개발

국립국어원은 청소년들이 또래 간의 대화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래 간 대화 지도 영상 자료' 및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7.1. 청소년의 대화 갈등 기초한 자료 개발

2011년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97%, 중·고등학교의 99%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고, 글말이나 통신 언어에 비해 입말에서 욕설 등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더 빈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주로 '상대방이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할 때' 공격적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응답하여, 대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격적인 언어, 폭력적 언어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국립국어원은 이처럼 대화 중 나타나는 갈등을 폭력적인 언어로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소통 문제에 주목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와 함께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 자료는 청소년들이 또래 간에 대화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각각의 갈등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과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대화 방법을 담고 있다.

7.2.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적 활용도 높여

청소년들의 대화 장면을 담은 영상과 교수 학습 자료로 구성된 이번 자료는 각각의 주제가 현 교육 과정(2009 개정 교육 과정)의 학년별 국어, 화법 영역의 내용 요소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정규 교과 과정 중에

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와 개인이 영상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지와 교사용 지도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 활용도를 높였다.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지도 영상의 주제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끝까지 들어, 줘.” ↔ “하고 싶은 말이 뭘데.”
- 공감적 경청: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 비언어적 표현: “웬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 공격적인 말: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 대화 구도 인식 차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특히, 대화 방법은 실제 대화 장면 없이 교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대화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를 지도 자료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동영상의 내용을 ‘도입-문제 상황-원인 해설-개선 상황-마무리’의 순서로 구조화하되 즐거리가 있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흥미를 높였다.

7.3. 국외에서는 이미 청소년 대화 프로그램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교육은 청소년 언어 지도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미국의 ‘자기 방어 언어 표현(Verbal Self Defense)’ 프로그램, 호주의 ‘응대 말(Comebacks)’ 프로그램, 핀란드의 ‘키바 따돌림 방지(KiVa Anti-bullying)’ 프로그램 등과 같이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의 연구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자기 방어 언어 표현 프로그램(미국): 정신과 감정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언어폭력을 방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언어 사용법.
- 응대 말 프로그램(호주): 상대의 공격적인 말에 재치 있는 답변으로 받아 넘기는 언어 표현 방법을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언어 프로그램.
- 키바 따돌림 방지 프로그램(핀란드): 언어적 · 신체적 · 사이버 괴롭힘 모두를 다루며 학생들의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 교육을 지향하는 언어 프로그램.

영상 자료 및 교수 학습 자료는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자료 찾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겪는 소통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 지도 자료가 일선 학교뿐 아니라 대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청소년 유관 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